

사회

“내 나이 90, 동생 볼 수만 있다면”

■ 실랑인 유동식씨의 망향가

1945년 평남 숙천서 광주왔다 가족과 이별
北 이산상봉 재개 회담 제의 소식에 기대

“이전(부모님·동생들) 얼굴이 가물거늘 허구만. 생각이 날듯 말듯 헛것이 사람을 더 애타게 맹고요. 더 잊어볼기 전에 봐야할 것인데. 생전에 한 번은 꼭 봐야 눈 감고 죽제, 글안으면 눈 못 감제. 암... 이번에는 조상님들이 소원을 들어 줄랑가...”

유동식(90·광주시 남구 양림동) 할아버지는 17일 북측(개성)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 접촉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렸다.

평안남도 숙천군이 고향인 유 할아버지는 1950년 6·25 전쟁만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이룰 수 없다. 이 전쟁을 계기로 고향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유 할아버지는 6·25 발발 5년 전인

1945년 전라남도 광산군 지산면(현 광주 첨단지구)에 사는 부인(82)과 결혼했다. 당시 유 할아버지는 결혼한 이듬해 남한에서 살기로 마음먹고 아내의 고향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때까지는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기막힌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하지만, 6·25 전쟁 이후 남북이 갈라졌고 할아버지의 고향 땅은 다시 밟을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다. 유 할아버지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영영 생이별이 되고 말았다”며 “부모님은 물론이고, 동생들까지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될까봐 한숨으로 지내는 날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유 할아버지는 최근 고령으로 건강



까지 나빠진 상태라 북한에 두고 온 동생들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유 할아버지는 6·25때 부모님과 동생 4명(남동생 3명·여동생 1명)과 헤어졌다. 당시 부모님은 나이가 50세가 넘었고, 지금은 110세 가람 될 터지만 반드시 생존해 계실 것으로 믿고 있다. 백발이 성성한 자신과는 달리 굵직한 부모님은 그 시절 그 모습

으로 한결 같기 때문이다.

특히 동생들의 모습도 어릴 적 전진난만한 모습 그대로다. 가족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게 유 할아버지의 소원이다.

유 할아버지가 이번 이산가족상봉에 가는 기대는 남다르다. 이번엔야말로 동생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일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전해지는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 관련 뉴스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15년 전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가족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유 할아버지는 “가족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온다”며 “동생들을 만나면 형 노릇을 제대로 한 번 해주고 싶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가족 생각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던 유 할아버지는 자신의 방 안에서 6·25전쟁 직전 동생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꺼내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1942명의 이산가족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시고 대하고 있다. /김희기자 kimho@

비브리오 감염 환자 잇따라
추석 연휴 날음식 조심해야

신안에서 회를 먹은 50대 남자가 비브리오 패혈증 양성판정을 받는 등 비브리오 감염환자가 잇따르고 있어 추석 연휴 음식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비브리오 패혈증 의심증세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박모(59)씨에 대한 진단결과 비브리오 패혈증 양성판정을 받았다.

간질환이 있는 박씨는 지난 11일 집에서 조리한 회를 먹고 나서 이틀 뒤부터 왼쪽 다리 피부에 수포 증세가 나타나는 등 비브리오 패혈증 의심 증세를 보여 지난 13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를 포함해 올해 전남도내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에 9명이 감염돼 이 중 3명이 사망했고, 6명이 치료를 받는 등 감염환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비브리오균은 감염되면 사망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질환이다”며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추석 연휴에 음식물 섭취와 오염된 바닷물 접촉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gju@kwangju.co.kr

나원침 (8123) 김장두



나주경찰, 몽골여성 살해 30대 검거

나주경찰은 17일 집을 나간 몽골인 아내의 고향 선배에게 흥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본보 16일자 6면) 양모(34)씨를 살인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20분께 나주시 이창동 한 공동주택 몽골인 K(여·25)씨의 집에서 흥기로 K씨를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간 몽골인 아내(21)를 데려가기 위해 K씨의 집에 갔다가 “술에서 깨면 데려가라”는 말을 듣고 찾감에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며 범행 사흘만인 이날 영암군 자신의 집 인근에 사는 가족들에게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백희영 장관 민소 방문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인 남성에게 살해당한 몽골여성 K(25)씨의 민소를 18일 방문, 정부를 대표

해 애도를 표할 예정이라고 여성가족부가 17일 밝혔다.

백 장관은 18일 오전 나주의 한 병원에 마련된 K씨의 민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금호고속 추석 임시버스 특별운행

금호고속과 금호터미널(사장 김성산)은 15일 임시버스 증차 등 추석 특별운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호고속은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을 중단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출발지에서부터 만차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게소 환승은 오히려 혼잡과 사고 위험 등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또 노선별 수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시버스를 투입, 배차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호고속은 회사 보유 버스를 출가동하고, 관광버스업체와 운수협정을 맺어 연휴기간 동안 800여차례 증차할 방침이다.

금호터미널은 귀성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휴티켓’, ‘고속버스 도착시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휴티켓 서비스는 집이나 직장 등 인터넷이 가능하고 프린터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탄핵결의 무효

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17일 고광석(38) 전 금호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지회장 등 2명이 소속지회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5월 26일 임시총회에서 각 지회가 지회장들에 대해 진행한 탄핵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의미한다. /최경희기자 choice@

생니 3개 빨고 군 면제 MC몽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허위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멸종한 이를 빨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0)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MC몽은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멸종한 오른쪽 아래 어금니 한 개와 보철치료만 해도 되는 어금니 한 개를 빨았다는 것.

○MC몽은 2006년에 왼쪽 아래 어금니를 빨는 등 모두 3개의 생니를 빨아 병역 면제받은 혐의. /연합뉴스



취업박람회 찾은 여성들

1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0 여성 취업·창업박람회'를 찾은 여성들이 취업과 창업 노하우에 대해 상담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 날씨, 귀성길 운전 조심, 광주·전남 22일 비, (오전) 바다, (오후) 바다, 주간날씨

추석 보름달 보기 어렵다, 광주·전남 22일 비, 올해 추석에는 비가 내려 둥근 보름달을 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光州日報 문화여행, 예술의 낙원, 10월 15일까지 참가자 선착순 40명 모집, 여행일지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하나SK카드